

### 중국 명청대 인물화 특별전 통도사성보박물관 4월 10일부터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해)은 복원미술관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기념 '중국 명청대 인물화 특별전'을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 기증실에서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전시 중인 중국 명청대 인물화는 유교에 기초한 충효사상 및 조상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양과는 전혀 다른 초상화 기법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중국의 초상화는 우리나라 초상화와는 달리 개인뿐 아니라 부부, 가족, 선대 조상을 한 장면으로 묘사한 초상화 등 여러 종류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관장은 "중국 초상화를 만났으므로 중국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봉축을 맞아 통도사를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 “들꽃 향기가 솔솔~”

#### 통도사 서운암 제7회 들꽃축제 개최

양산 통도사 서운암암주 성파는 4월 25~30일 서운암 일대에서 제7회 들꽃축제를 개최한다. 4월 25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들꽃사랑 콘서트, 차와 사찰음식의 날, 들꽃사랑 시 축제 등으로 이어진 서운암 들꽃축제는 일주일간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전시는 들꽃시화전, 연꽃사진전, 신홍피과 김형틀 화백작품전, 우리차시연회, 전통염색공연 등이 있다.

하성미 기자

### 울산 동구 사회 복지관 개관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이사장 보연)은 4월 16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활안) 개관식을 개최했다. 원각선원은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1일 울산동구사회복지관을 수탁했다.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면적 4533.21㎡,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경로식당, 조리실습실, 제조실, 건강관리실, 취업훈련교실 등 울산 시내 종합사회복지관 중 최고 규모의 시설을 자랑한다.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 문화, 가족복지, 저소득층 지원 사업, 자활 사업, 지역 사회 조직 사업, 재가복지 봉사 센터 등 지역 사회 복지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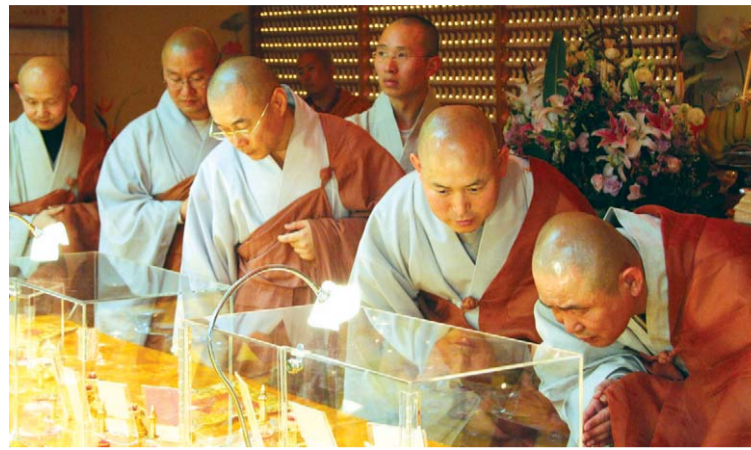
활안 스님은 "복지법인 원각선원은 사회복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설립했다"며 "설립 의도에 맞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 광고 · 구독문의  
(051)632-4440

## “저희도 정진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 사리친견 자리에서 정진의 열정 펼친 반야원



부산 반야원에서 열린 '미륵불상 심장전 사리 투어'를 둘러보는 스님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륵불상 심장전 사리 투어'가 부산 범어사 해운대 포교원 반야원(주지 목종)에서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됐다. 이와 함께 반야원 스님들이 진신사리를 모신 법당에서 3000배 철야정진, 예불, 정군을 통해 24시간 끊이지 않는 정진기도가 이어져 사리친견법회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벤트로 마련되는 사리친견은 오히려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리를 친견하는 것만으로도 의식은 고양되고 마음은 평정을 찾고 고요를 얻지요. 그런데 부처님의 사리를 놓고 정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은 이벤트로 펼쳐지는 일회성 친견 자리가 아닌 진심으로 수행을 점검하고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줄 것을 강조했다.

“반야원 스님들이 두 팀으로 나눠 하루에 500배씩, 새벽에는 철야정진, 예불 그리고 친견 마지막 날 23일에는 지장재일에 맞춰 천도재를 봉행했습니다. 정진하는 분들을 배려해 특별히 사리친견 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지요. 꽃이 있는 곳에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 가득한 곳에 머물면 향기는 저절로 스며들게 되지요. 수행의 결정체인 사리를 모시고 정진하는 스님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깨닫고 맑은 향기가 스며들었을까라 믿습니다.”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과 신도들은 17일부터 23일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에 수행과 정진하는 사리친견 문화가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7일 오후 3시 열린 진신사리친견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해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립 스님 및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 부산불교거사협회 배호암 회장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인터내셔널이 주관하는 '미륵불상 심장전 사리 투어'는 2001년 3월부터 세계 각국의 도시를 순회하며 사리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시 중인 사리들은 투어가 끝나는 대로 인도 쿠시나그라에 조성될 152m 높이의 미륵불상 심장에 안치될 예정이다.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인터내셔널에서 전시 중인 사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400여과를 비롯해 10대 제자와 500아라한의 사리 2000여과, 한국 성철 스님을 포함한 세계 고승 총 39위의 사리 3000여과이다. 사리 투어는 부산에 이어 4월 29일~5월 4일 대구 시민회관, 18~19일 전남 보성 대원사, 23~25일 서울 상원사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 동행취재-부산 홍법사 108산사 순례

## 부처님 닮고 싶은 불자들의 구도행

부처님 마음 깨닫고 싶어 참선을 익히고, 부처님 마음 행하고 싶어 경전을 배우며, 부처님 미소 머금고 싶어 자비를 행하는 결망 메고 떠나는 홍법사 108산사순례, 부처님 모습 찾아서 가는 구도행이라네.

홍법사주지 심산가 대탈 음력 10일이면 '결망 메고 떠나는 홍법사 108산사순례'라는 주제로 성지순례를 간다. 15일 화순 운주사, 나주 불회사, 보성 대원사 순례에 동행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아침 6시, 23대의 대형버스에 1000여명의 회원들이 나뉘어 타고 새벽공기를 가르며 부처

님의 숨결이 살아 있는 순례길에 올랐다.

108산사 순례를 목적

했다. 108산사순례회 회장 광영자(반야심) 보살은 "108순례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1000명의 불자들이 움직인다 보니 2개월 전부터 주지스님과 함께 선발대를 구성해 사찰 주자장부터 108개가 가능한지 등 제반 상황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순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찰을 질문했다. "장육사 가는 길은 부산에서 거리도 멀고 사찰 진입하는 길도 험수하여 어려움이 많았는데, 관세음보살 건칠

이 윤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참하기 어려운 데 인상이 깊었고 환



## 수행과 신행을 목적으로 순례 1000여명의 회원 불심 가득

으로 2007년 음력 1월 동화사, 파계사, 제2석굴암으로 시작한 산사순례는 벌써 15회를 맞았다. 회향은 2010년 음력 1월이며 금강산에 있는 사찰을 순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수행과 신행을 목적으로 여유롭게 기도하고 순례하는 것이다. 세군데 사찰 중 한 곳에서 108배를 하고 주지스님으로부터 사찰 설명을 듣고, 공양도 야외에서 하며, 스님들이 결망 메고 다니는 마음으로 불자들이 오늘 하루라도 출가의 정신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108산사순례의 취지를 밝혔다.

운주사에 도착하여 곳곳에 있는 부처님을 향해 야외법당을 마련하고 <천수경> 봉독, 백팔대참회, 축원, 운주사 주지스님의 사찰소개로 마무리

회심이 낫습니다.' 점심공양 후 주지스님이 염주 알을 나눠주고 있었다.

세일의 염주 알에는 오늘 순례할 사찰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용도에 의문이 생겨 스님께 여쭙어 보았다. '염주 알을 다 모으면 108개가 된다. 기념되는 것뿐 아니라 108배 사찰순례로 기도 원력도 성취될 것'이라며 말없이 웃음 지었다.

6월 산사순례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 관음사와 약천사이다. 벌써 1000여명이 등록했다고 한다. '결망 메고 떠나는 홍법사 108산사순례'는 현재 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듯 부처님 닮아가고자 하는 불자들의 구도행으로 자리매김했다. (051)508-0345

오세룡 부산지사장

### 총재 취임 및 신입생 환영회



#### 부산파라미타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4월 13일 총재 취임 및 신입생 800여명을 위한 환영회를 개최했다. 신입 총재 정여 스님은 "어린 학생들이 참된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명숙 회장은 "청소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길 바란다"고 신입생들을 환영했다.

이어 총재 정여 스님은 해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을 부총재로, 각 학교 교사 13명을 파라미타 지도교사로 위촉했다.

하성미 기자

### 합천 금강산원 내나무 심기 템플스테이 개최

## “내 나무 한 그루 심어요”

합천 금강산원(주지 초중)은 4월 12~13일 양일간 내나무 심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름표가 달린 느티나무, 단풍나무, 소나무를 심으며 자연과 하나된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참선체험, 명상의 시간을 통해 초중 스님으로부터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 세상의 사물을 관찰하는 법, 짧은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법 등을 배웠다.

초중 스님은 "자기 이름표가 달린 나무를 심고 가꾸며 일상에서 지치고 힘이 들 때 산사 도량에 심은 한 그루 나무를 생각하면 삶이 보다 더 여유로워 지겠다는 생각에 지난해에 이어 '내나무 심기'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산사체험에 동참한 김덕순(50·대구 수성구)씨는 "앞으로 자주 찾아 수행도 하고, 내가 심은 나무를 꾸준히 가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Lotus · Lantern · Festival · 燃燈祝祭

불기 2552(2008)년 5월 4일(일)

어울림마당 오후 4:00-6:30 현대문숙구청  
 불교문화마당 정오 - 오후 7:00 조계사왕길  
 제등행렬 오후 7:00-9:30 중로거리  
 대등 한마당 오후 9:30-11:00 동각사거리

연등축제

동등위원회  
www.연등축제.kr

